

참전군인을 대하는 위대한 맥아더 장군의 태도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너코스티아 평지에 자리잡고 있는 국회의사당을 마주보는 포토맥 강 강변에 천막을 차렸는데, 존 도스 패서스가 묘사한 것처럼 "사람들은 날짜가 지난 신문과 마분지상자, 나무상자, 양철판이나 슬레이트 조각 등 시 쓰레기 하치장에서 긁어모은 갖가지 재료로 서로 기대어 세운 작고 기우뚱한 임시 거처에서 비를 피해 잠을 자고 있었다." 하원에서 통과된 보너스 지급 법안이 상원에서 거부되자 낙담한 일부 참전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일부는 국회의사당 인근의 정부 건물에서 야영을 하고 나머지는 애너코스티아 평지에 진을 차리자, 후버 대통령은 군대에게 그들을 철수시키라고 명령했다.

기병 4개 중대와 보병 4개 중대, 기관총 대대, 탱크 6대가 백악관 근처에 집결했다. 작전 책임자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었고 드웨이트 아이젠하워 소령이 그의 부관이었다. 지휘관 가운데는 조지 S. 패튼도 있었다. 맥아더는 펜실베이니아 대로를 따라 군대를 진격시키면서 낡은 건물에서 참전군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고 건물에 불을 질렀다. 뒤이어 군대는 애너스코티아를 향해 다리를 건너 이동했다. 최루가스가 퍼지자 수천 명의 참전군인과 그들의 부인,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오두막 몇 채에 총을 쏘았고 곧 천막촌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사태가 끝났을 때, 참전군인 2명이 총탄에 맞아 사망했고 생후 11주 된 아기가 목숨을 잃었으며, 8살짜리 소년은 최루탄으로 한쪽 눈을 실명했고 경찰관 2명이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참전군인 1,000명이 최루탄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하워드 진, 유강은 역, 『미국 민중사 2』, 이후, 2008, 67~68쪽.

역시 한국의 때극기들이 그리도 좋아하며 동상까지 기리는 맥아더 클라스!